

한·중 중형기사업 협상결렬... 전면 백지화

한국과 중국간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이 백지화 됐다.

통상산업부 秋俊錫 차관보는 6월 17~18일 이틀간에 걸쳐 양국은 북경에서 韓·中 중형항공기 공동개발사업을 위한 항공기분과위원회 제3차회의를 열었으나 상호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더이상의 추가 회담은 갖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秋 차관보는 '추가회담을 갖지 않기로 한 만큼 중국과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을 더이상 추진하기 힘들게 됐다'며 '이는 공동개발사업 자체가 백지화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중국이 지난 94년 11월 제1차회의에서 합의한 양국 공동개발 원칙을 일방적으로 깨고 한국측에

10%의 지분참여와 최종조립장 중국내 설치 등을 일방적으로 강요, 우리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최종 결렬된 것이다.

秋 차관보는 '항공기제작기술 습득과 시장확보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상타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중국이 이미 합의된 원칙을 파기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협상을 지속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측(대표 湯小平 중국항공공업총공사 국제합작무역국장)은 중형항공기 최종조립장을 중국(상해)에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그동안 중국항공공업총공사(AVIC)가 유럽연합(AIA) 및 싱가포르(STA)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측에 대해 10%의 지분을 출자하여 참여할 것을 주장했다.(관련기사 16쪽 참조)

KAL, F-16성능개량사업권 획득

대한항공이 태평양 주둔 미 공군에 배치된 F-16전투기의 개량사업을 맡게됐다.

대한항공은 최근 미 공군이 처음으로 실시한 1천만달

러 규모의 F-16전투기 성능개량사업(F-16 up project)의 국제경쟁입찰에서 기술력 등을 인정받아 사업권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미 공군의 평가기준인 기술수준과 설비보유 안정성 등 엄격한 조건을 두루 충족시키고 있음을 입증, 세계적인 성능개량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동사는 2001년까지 50대분의 성능개량 사업권을 확보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등 극동지역에 배치된 나머지 90대분의 성능개량사업 수주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 공군의 이번 성능개량사업은 현재 3천시간인 F-16C/D전투기의 수명을 8천시간으로 연장키 위한 것으로 동사는 이들 기종에 대한 대규모 정밀보강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2001년까지 총 50대의 F-16성능개량사업권을 따냈다

삼성항공, B427 컨소시엄 구성... 한국화이바 등 38개사

삼성항공산업(주)(대표 이대원)은 지난 6월 3일 美 벨(Bell)사와 신형헬기 B427 국제공동개발 사업을 위한 국내 업체 컨소시엄결성식을 개최하였다.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번 결성식에는 한국화이바 등 9개의 정회원사와 기타 기계가공분야에 10개사, 판금가공 및 치공구분야에 10개사, 소재분야에 9개업체가 생산분야에 일품목 독점공급업체 등 총 38개업체가 참여하였다.

B427공동개발사업은 미국의 벨(Bell Helicopter Textron)사와 민수용 쌍발 8인승 헬리콥터를 공동개발(생산·판매하는 사업으로 총 중량 27톤, 탑재중량 12톤, 순항속도 259km/h, 항속거리는 654km이다. 삼성항공은 지난 2월 벨사와 공동개발에 착수하였으며 '97년 9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98년말 FAA의 형식증명을 획득할 계획이다.

동 헬기개발 컨소시엄은 최종조립업체와 부품업체간 리스크셰어(Risk Share) 방식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생산분야에 참가하는 하청업체들도 일품목 독점공급방식을 채택, '98년부터 2012년까지 15년간 B427헬기 동체의 독점공급권을 가지며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완제기 조립 및 판매권을 갖는 등 약 17억불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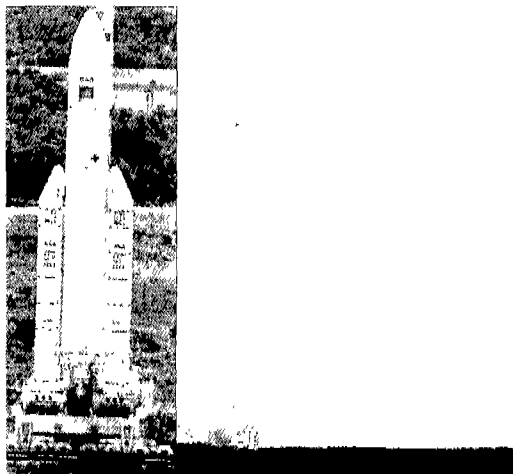
삼성항공은 국내 38개업체와 B427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아리안 5호 폭발사고... 첫 발사시험 실패

유럽이 세계상업위성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개발한 차세대 우주발사체인 '아리안(Ariane) 5호'가 첫 발사에 실패했다.

프랑스 우주국은 4대의 과학 위성을 탑재한 아리안 5호가 이날 프랑스령 기아나의 유럽우주국(ESA) 기지에서 발사된 직후 궤도를 이탈하자 지상관제소에서 이를 폭발했다고 밝혔다.

아리안 5호의 이번 발사실패로 세계 상업위성 발사시장을 공략하려는 유럽측의 전략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좌) 발사직전의 아리안5호의모습 (우) 폭발장면

아리안 5호는 12개 회원국이 70억달러를 투입하여 10년간 개발한 로켓으로 3톤무게의 통신위성 2개를 지구정지궤도에 띄울수 있어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자랑해왔으나 이번 실패로 상업화일정에 차질을 빚게됐으며 대외적인 이미지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한편, ESA측은 이번 실패는 전자 및 소프트웨어기능 이상으로 빚어진 결과라고 분석하고 조사만을 편성 7월 15일경에 사고경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리안 5호 제2호기는 올 10~11월경에 발사될 계획이나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